

## 41장 여호와의 종 - 고레스와 이스라엘

41-56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다. 그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신 종이었다. 처음에는 그가 익명으로 나오다가 후에 가서는 더욱 분명하게 나온다(41:1-7, 25-27; 43:14-15; 44:24-45:8; 45:13; 46:10-11; 48:14-15. 고레스가 분명히 명시된 구절은 44:28; 45:1이다). 둘째는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 떨어져 있었다(41:8; 42:19-20; 44:1-4, 21-23).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종의 위치에 합당하게 회복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셋째 의미의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다.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는 네 편의 시는 주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42:1-9; 49:1-6; 50:4-7; 52:12-53:12).

### 1. 이방 나라와의 변론과 그들의 응답 (41:1-7)

#### 1) 세상을 향한 변론 - 동방 왕을 통한 경영 (41:1-4)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변론하자고 하시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변론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된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신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분은 그들과 변론하십시오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2절에서는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을 말하는데, 그는 열국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고 모든 나라를 자기 앞에서 티끌과 초개처럼 흩어 버리는 사람이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시킬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45:1). 고레스가 제국을 평정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의 신 때문이 아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으로 알리시면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내가 곧 그니라” [아니 휘는 ‘에호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41:4. 참조 요 8:58; 18:5). 출애굽의 구원으로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리신 것처럼, 이번에도 고레스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리셨다.

#### 2) 다른 나라들의 반응 (41:5-7)

여호와께서 동방의 왕 곧 고레스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그런데 그들은 성문을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있다. 아마 새로운 우상을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면서도 서로 ‘잘한다, 잘한다’ 하고 격려하며, 열심히 일하였다. 금장식을 격려한 것을 보면 금을 바치면서 우상을 만든 것처럼 보인다.

이 문단은 그들이 열심을 품고 일하는 모습까지만 보여 주고 그냥 끝난다. 그들의 수고한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실 독자들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들은 무력할 뿐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참으로 미련하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자기를 알리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데 도리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 2.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41:8-16)

#### 1)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을 붙드심 (41:8-13)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시면서, 이방 나라의 그러한 반응과 무관하게 친히 행하실 일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아브라함을 동방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들도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을 두 번이나 ‘나의 종’ 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선택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장차 동방 왕을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41:8-9).

따라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섬들은 동방 왕을 보고서 두려워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견고하게 붙드실 것을 말씀하셨다. 우상은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을 안고 가신다(41:10, 13).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붙잡아 주시면, 그들과 싸우고 치려 하던 자들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41:11-12).

## 2) 벌레에서 타작 기계로 (41:14-16)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벌레/지렁이와 같은 야곱’ 이라고 부르면서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사 41:14). ‘벌레’ 라는 말은 시편 22:6 에도 나온다. 거기에서 ‘벌레’ 는 바산의 들소들이 밟으면 없어질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르시는 분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가 구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사 41:14). 이 부분에서 ‘구속자’ 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가 밀접히 연결되어 나타난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분이 동시에 구속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신다(사 41:15). 이방 나라들은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을 짓밟고 자기들은 산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그 산들을 거같이 부수어서 날려 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 할 것이다(사 41:16). 이스라엘은 지렁이처럼 불품없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서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만한 타작 기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되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지만 결국 그 산은 가루가 되어서 없어진다. 열국이 가루가 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의 환상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벌레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행하는 놀라운 일이다.

## 3. 새로운 출애굽과 북방 왕 (41:17-29)

### 1) 새로운 출애굽 - 광야가 옥토로 (41:17-20)

이스라엘이 타작 기계가 되어서 큰 산을 가루로 만드는 일은 그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함이다. 17-2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은 마치 광야가 낙원으로 바뀐 것과 같은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84:6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와 같은 메마른 땅이라도 그들이 지날 때에는 비가 내려 많은 샘이 생기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백향목과 싯딤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향양목 등이 피어날 것을 말하는 이 부분을 35장과 붙여서 읽으면, 황야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옥토처럼 될 것을 포함하는 예언이 된다. 35장이 종말론적인 회복을 노래한 예언임을 생각하면 4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도 종말론적인 차원이 있음을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다.

## 2) 우상에 대한 변론 - 북방에서 오게 할 왕 (41:21-29)

하나님께서 열방이 섬기는 우상을 피고석에 세우시고는, 그 우상들을 향해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라’ 하고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상은 가증하며, 따라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도 가증하다.

이에 반하여 여호와께서는 친히 ‘북방에서 한 왕’ 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41:25). 하나님께서는 아직 ‘고레스’ 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은 그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실 것을 예언하시지만, 우상은 그러한 예언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41:2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시온에 미리 전하셨다(41:27). 비록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우상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으며,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 41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기 위해 동방에서 일으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참조 45:1)
2.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일으킬 자가 임할 때 열방이 무서워 떨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5-7절)
3.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그중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부르신 표현은 무엇입니까? (8, 9절)
4. 열방이 고레스를 두려워하며 떨 때에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불드시기 때문입니까? (10절)
5. 지렁이같이 약하고 불품없는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14절)
6.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5절)
7.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광야를 낙원처럼 만드는 분이시지만 (17-19절) 열방은 무엇을 의지하다가 허망하게 되고 가증하게 될 것입니까? (21-29절)